

놀이밥 60+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 연구



1) 놀이로 친구를 찾고, 놀이로 나를 찾고, 놀이로 재미를 찾고, 놀이로 가치를 찾고, 놀이로 미래를 찾는 사람들

차례

I. 연수 개요	3
II. 영국의 놀이정책	3
1. 놀이를 국가적 전략으로 채택	3
2. 놀이 정책의 방향	4
III. 연수 내용	6
1. 연수기관 및 방문기관 현황	6
2. 기관별 연수 내용	6
가. Chelsea Open Air Nursery School and Children' s Center	6
나. Children' s Commissioner	8
다. Yeading Junior School	10
라. Diana Memorial Playground	11
IV. 연수 성과	12
1. 놀이 활성화 방안	12
가. 놀이에 대한 가치, 태도, 문화 재정립	1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놀이 전략 수립	13
다. 놀이 문화 원칙과 기반 조성	13
2. 결론	14
3. 연수소감	15
◆ 연수 활동 사진	16

I. 연수 개요

놀이를 찾는 사람들의 전북교육청 글로벌 테마연수는 전북교육청의 놀이밥 60+프로젝트의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선진국의 교육 정책 및 미래 역량으로서의 ‘놀이’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인솔 팀장을 포함해서 총 6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6박 8일간 연수 일정을 진행하였다. 영국에서 국가 수준의 놀이 정책을 직접 살펴보고 기관방문시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 전북형 놀이 정책 안착을 위한 실행과제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수 결과를 토대로 우리교육청 놀이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지역사회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현장 속 놀이 문화를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1. 연수 기간 : 2016년 10월 08일 ~ 2016년 10월 15일(6박 8일간)

2. 연수 대상 국가 : 영국

3. 연수 장소

- Chelsea Open Air Nursery School and Children' s Center(첼시 야외 놀이 센터)
- Children' s Commissioner(국가 아동위원회)
- Yeading Junior School(예딩 주니어 스쿨)
- Diana Memorial Playground(다이애나 기념 놀이공간)

II. 영국의 놀이 정책

1. 놀이를 ‘국가적 전략’ 으로 채택

◦ 영국 중앙정부 놀이정책 : Children' s Plan(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7)

- 중앙정부가 놀이에 대한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여 국가적 관심 제고

* 교육과 놀이를 모든 아동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놀이 정책 실행

- 중앙정부가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예산을 반영, 지역공동체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 2008~2011년간 2억3500만 파운드(한화 4200억원)의 예산을 놀이정책에 투입

- 아동학교가족부(DCSF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기존 교육기술부를 아동 및 청소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편

- 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 긴밀한 협조와 지역공동체 및 지방정부, 보건부, 교통부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놀이 정책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정책을 안착화하는 방법 습득
- **아동 놀이 헌장(Charter for Children' s Play) 제정**
 - 1992년, 아동의 놀 권리와 놀이의 중요성을 주제로 헌장을 채택하여 전국 아동단체총연합회(National Children' s Bureau_NCU)가 추진함
 - 1998년, NCU산하의 아동놀이협의회(Children' s Play Council_CPC)가 개정
 - 2007년, CPC를 확대 잉글랜드 놀이부(Play England)가 재개정하여 아동의 놀이실태, 아동의 놀이 욕구, 아동놀이헌장의 목적과 방법, 사회의 책무 등을 다룸
- **Play at Schools, 1999 & Play as Culture, 2002**
 - 놀이관련 단체인 PlayLink가 수행한 놀이의 본질에 입각한 연구
 - Play at Schools는 여러 초등학교들이 학교 운동장 개선을 위한 자문의 결과물
 - Play as Culture는 학교의 쉬는 시간을 '수업을 중단한 시간' 이 아니라 '놀이를 하는 시간' 으로 바로잡기 위해 연구 수행(놀이가 문화로서 이해되고 문화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미)
 - PlayLink는 놀이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질적인 놀이비전의 개념이 퇴색되어지는 문제 제기와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문화 전략을 기획할 때 놀이를 삶의 질과 연결지어 정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Children' s Plan 수립(2007)**
 - New Opportunities Fund 출자로 시작된 놀이에 대한 최초 지원이 2007년 만료 되면서 중앙의회에서 Big Lottery Fund로부터 더 큰 규모의 지원 결정
 - 영국 중앙정부는 현대사회의 놀이기회 감소와 놀이 실조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의 놀이 공간과 기회 제공을 공적 책무로 인식하게 됨

2. 놀이 정책의 방향

- **안전과 친자연적 환경**
 - 영국 전역의 주거지에 안전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매력적이고, 몰입을 유도하는 놀이터와 공원을 새로 만들고 기존 시설을 정비
 - 각 지역사회와 주거지 전역이 실질적으로 '친아동적' 이며 놀이공간의 신

- 축, 개축 과정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들이 놀이공간 개발에 적극 참여
-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역 내의 공공 공간에 확실한 제 위치(stake)를 갖게 하고 놀이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환영받도록 함

○ 놀이정책의 실행계획

- 전국 행정구에 3500개의 놀이터 신,개축(30개의 ‘놀이터 길잡이’ 팀 운영)
- 아동기 전 기간의 놀이에 대한 지원(Children’s Centers 담당)
- 친아동적 지역사회의 형성(‘놀이관리자’ 양성)
- 모든 지역 행정부가 놀이를 우선적인 정책 주제로 다루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 2011년까지 1차로 4000명의 놀이종사자(play workers)자격 취득제

○ 놀이 정책 참여기관

참 여 기 관	기 능
Play England	영국의 현 정부가 놀이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 파트너로 지정한 핵심기구
Skills Active와 Playwork Partnership	현 놀이정책의 주요 부분인 놀이종사자(playworkers)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 Built Environment)	건축, 도시디자인, 공공 공간 조성 등에 관하여 정부에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
Big Lottery Fund	로또복권 전체 수익금의 1/2 정도를 배분하는 가장 큰 복권 수익금 운용기관
PlayLink	1962년에 ‘런던모험놀이터연합’ 으로 발족하여 1993 년에 전국 연합 으로 확대된 단체. 놀이와 레저에 관한 컨설팅을 하는 민간단체로, 공간 디자인, 사업기획, 정책평가, 전략수립, 기금모금, 지역 개발 및 참여, 조직 구성 등을 담당
Freeplay Network	어린이의 놀이기회가 향상되어야 할 필요성을 공공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들의 모임
National Playing Fields Association	어린이를 위한 운동 공간과 놀이 시설의 열악함을 해소하기 위해 조지 5세가 1925년에 설립한 기관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	아동학교가족부의 전신인 교육기술부(DfES)가 004년에 기획한 잉글랜드 내 모든 중등학교의 개축(transform) 프로그램(capital investment program)
Joseph Rowntree Foundation	잉글랜드의 성공한 사업가인 Joseph Rowntree가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소한다는 목적 하에 1904년에 설립한 복지 재단

Ⅲ. 연수 내용

1. 연수기관 및 방문 기관 현황

연수기관	정 보	
Chelsea Open Air Children's Centre	주소	51 Glebe Place London SW3 5JE
	전화	+44 020 7352 8374
	사이트	http://www.chelseaopenairnursery.co.uk/aboutus.php
	이메일	info@coans.rbkc.sch.uk
Children's Commissioner	주소	Sanctuary Buildings, Great Smith St, Westminster, London SW1P 3BT
	전화	+44 020 7783 8330
	사이트	http://www.childrenscommissioner.gov.uk/
	이메일	oliver.berman@childrenscommissioner.gsi.gov.uk
Yeading Junior School	주소	Carlyon Road Hayes UB4 0NR
	전화	+44 (0)1895 462 396
	사이트	http://www.yeadingjuniorschool.co.uk/Introduction
	이메일	office@yeadingjuniorschool.co.uk
Diana Memorial Playground	주소	The Broad Walk Kensington Gardens, London W2 3XA, England
	전화	+44 0300 061 2001
	사이트	https://www.royalparcs.org.uk
	이메일	dianaplayground@royalparcs.gsi.gov.uk

2. 기관별 연수 내용

가. Chelsea Open Air Nursery School and Children's Center

템즈 강변에 자리 잡은 첼시 오픈 에어 스쿨은 1928년에 수잔 아이작, 그리고 나탈리 데이비스 박사에 의해 개설되었다. 당시 전국에 일어난 교육운동 가운데 'open air' 운동이 있었으며 교육 공간을 도심의 아이들이 햇볕과 바람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설립자 수잔 아이작 박사의 취지이다.

기관의 이름 'open air' 에서부터 자유롭고, 창조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것을 드러낸다. 아이들이 모든 곳에서 배울 수 있다고 믿고, 아이들이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서 독립적이고, 평생 배움을 지향하는 개인으로 자라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아이들에게 도전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존중과 사랑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학교 소유 실외 교육 장소는 템즈 강변 정원을 비롯해 80곳)

○ 센터장과의 인터뷰 내용 및 결과



- 야외활동 매일 운영 : 야외활동과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 부모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환경 : 부모가 이야기 책 읽어주기, 도서 대여시 소품과 함께 대여함으로써 가정내 자기만의 스토리 활동 전개하고 아동의 발달상황이나 활동에 대한 아동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부모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수시 공유함
- 정돈되지 않은 자연그대로의 놀이 시설과 환경 : 자연속에서 놀게 함으로써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배워가며, 365일 야외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체력과 몸의 균형 유지
- 야외활동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 야외활동에 따른 안전사고나 위험 노출에 대한 염려보다는 원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신뢰가 있어 가능하다
- 놀이센터 운영은 정부의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나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자발적인 지원과 봉사가 주를 이룸
- 야외활동에 있어서 아동이 원하는 만큼 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놀이와 교육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자연스럽게 부여하고 템즈강 주변 공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도전적인 환경에서 탐색 할 수있는 자신감을 개발하는 계기를 만들어 줌
-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 놀이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로운 통합능력을 배우게 함
- 아동의 일상 놀이와 학습에 자기 성장을 스스로 하게 한다. 예를 들면 shar ings, 축하 축제와 생일, 지역 사회 탐험, 및 크리스마스 조명 등의 특별 행사에 있어서 학부모의 참여와 지역사회와 협력을 연간 구축
- ☞ 놀이밥 60+ 활성화 노력에 대한 조언 : 놀이에 대한 장점과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므로 부모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인식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기관과 학부모, 지역사회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놀이에 대한 필요성,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 Children's Commissioner(국가 아동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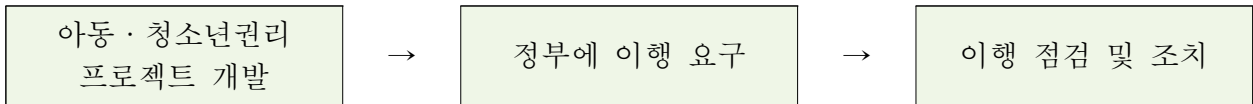
○ 기관 소개

2000년 빅토리아 클림비라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사건으로 인해 영국 국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됨. 2004년 아동법(CHildren Act)에 의해 결성되었고, 2014년 Children and Families Act에 의해 영향력이 강화

* 어린이 권리보호, 어린이 안전, 권리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

○ 주요 정책

-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지원 활동
-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 보호 시스템 새로운 접근을 시도, 아이들을 학대와 방치로부터 보호. 가정 내 성적 학대에 대한 보고서 제작
- 취약 아동들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취약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 권리에 대한 부분을 평가
-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아동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리>

- 18 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는 UNCRC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 모든 어린이는 그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돌봐야 할 권리가 있다
- 위원회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받고 집에서 멀리 살고, 치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 모든 어린이는 자신의 요구를 충족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 모든 어린이는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아이는 그들에 영향을 미칠 심각하게 가지고 모든 문제에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 모든 어린이는 상관없이 자신의 배경이나 능력,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어떤 아이는 잔인적인 대우 나 처벌을 고통 없습니다. 체포 및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 이상 44,000 어린이와 매년 의사 결정에 젊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국립에 도전한다
- 모든 어린이는 최적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UNCRC하지 영국 시민 또는 상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어린이에 적용된다
- 모든 아이는 뭔가가 잘못되면 자신의 의견과 우려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어린이는 학대와 방치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아동위원회의 활동

- 아동의 권리 보호와 범죄, 학대 등에 대한 예방 및 지도관리 역할 담당
- 중앙정부를 견제하며 아동·청소년의 행복추구를 위한 각종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이행을 요구함
- 영국 44개의 경찰청과 151개의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리 이행여부 점검

○ 아동위원회의 역할

- 어린이 위원회는 어린이의 권리, 안전, 복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호해주는 특별기구
- 안전보호 및 복지가 필요한 학생 발굴을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력, 역할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확보해서 지원방안을 모색
- 공공기관에서 월1회 어린이 참여를 부여하여 어린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뉴스앵커, 축구감독, 정부 각부처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함
- 매년 아동 권리 정책 이슈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하고 로드맵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담당 행정관의 협조하에 아동 권리를 위한 정책 추진
- 어린이 권리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기관으로 활동이나 역할은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이 보장되어 있으며, 사업 및 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국회에 보고

○ 아동위원회 방문 및 정책위원장과 인터뷰 결과



☞ (인터뷰 소감) 아동의 권리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아동위원회 설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놀이정책과의 연관성을 찾기에 한계가 있었다. 아동의 권리에 있어 놀권리, 놀이 정책 등은 아동 위원회 역할로는 규정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아동의 복지, 권리, 보호, 안전 등 아동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갖추고 있어서 국가 차원의 아동 권리가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보호받을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국가적 관점은 놀이정책이나 문화를 정착하는데 계기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 Yeading Junior School

○ 학교 소개

- 7세~11세 유치원과 초등학교 혼합형 학교, 0~3세 칠드런 센터 함께 운영
-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의 다문화 학생들(480여명) 포함, 큰 규모의 학교
- 정부에서 6년 마다 실시하는 학교 평가(OFSTED)결과 ‘우수(2013)’ 지정

○ 학교 관람 결과

다문화 학생이 유난히도 많은 학교.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발휘하게 하는 다양한 클럽활동이 단연 돋보였다. 특히 숲 놀이터, 놀이를 존중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놀이 공간들..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였다. 학교 구성원들도 자유롭고 책임있는 모습 그대로다. 구성원의 합의와 의견이 존중받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학교운영을 결정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많은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자율권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보장받는다. 그래서 교직원들은 잡무라는 개념도 없다. 학교가 지식을 배우는 곳을 넘어 함께 놀고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게 되는 지혜의 공간이었다.

○ 교장, 교감선생님과의 인터뷰 내용



- (0~3세 칠드런센터 운영 방식) 요일별로 부모와 같이 와서 활동,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아이를 맡길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 86%가 영국부모가 아니라 외국인 부모다. 1800가구가 등록되어 있음
- (교육과정 운영 방식)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국민교육 공통 커리큘럼,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토대는 정부에서 커리큘럼을 주고, 학교 특성에 맞게 학부모 및 학생 만족도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일부 조정. 다문화학생이 많은 만큼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둠. 정부에서 기본적 교육과정은 주지만 교육방식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성은 최대한 발휘.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직원회의를 통해 놀이와 활동을 강화함

nersery부터 2학년까지는 놀이를 통한 학습, 놀이와 활동 위주의 학습 진행

- (Forest School) 수시로 야외에서 영어, 수학, 토론, 요리 등 다양한 수업, 1일 2시간 정도 자유롭게 운영, 숲에 있는 조약돌을 활용해 숫자를 배우고 요리, 토론 등을 통해 배려와 협동심을 배움
- (학교 재원 조달) 지역교육청 개념이 아니라 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받음. 집행에 있어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는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공무원, 학부모, 법조인, 교사 등이 참여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 계획 및 방법을 논의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학교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부여함(별도의 집행 결과 보고는 없음)
-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인근 상점으로부터 물품을 기증받아 학교내에서 활동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기도 하고, 은행, 소방서등 지역사회 및 단체가 학생의 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학부모, 지역사회, 법조인, 지자체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음
- (놀이와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학부모들이 놀이와 활동이 학습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하면서 학교 활동이나 운영방식에 적극 신뢰하고 있음.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애들이 밖에 나가 뛰는 것을 좋아함. 수시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놀이에 대한 긍정적 사고,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에 적극 지원하고 신뢰하는 것임
- (놀이기구 점검 및 안전문제) 교장, 교감등 4명의 교직원들이 매일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1년마다 안전관리팀이 학교 놀이 시설 점검을 실시

라. 다이애나 기념 놀이터(Diana Memorial Playground)

다이애나 기념 놀이터는 켄싱턴 가든을 산책하다 발견한 뜻밖의 선물이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추모하기 위해 2000년에 조성하였으며 아이는 부모(성인)의 허락없이 출입할 수 없으며 출입문 자동잠김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12세 이하의 아동과 함께하는 부모(성인)만 입장 가능하다는 안내문에 마침 들어오는 아이들과 간단한 소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행운도 얻었다.

- **(다이애나 기념 놀이터 방문 소감)** 매년 1백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놀이터를 즐긴다고 한다. 다이애나 공주는 아이들은 놀기, 탐험하기, 돌진하기, 그리고 환상적인 공간에서 상상력을 터뜨리는 것을 좋아함을 알고 놀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 같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서 발견한 아이들의 흔적, 해적선 주위에 해변과 다양한 장난감과 놀이 조각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은 나무와 식물의 무성한 자연 그대로와 어우러진 공간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에 모두가 감사한 마음이었다.
-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고 아이들의 신체적, 창조적, 사회적 및 교육적 발전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에 감탄했다. 피터팬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놀이터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탐구심을 갖게 했고 노는 아이들을 따라 다니며 행복한 모습을 봤다.
- 무늬만 놀이터인 놀이터인 한국과는 너무도 달랐다. 안전제일이라는 명분으로 재미를 없앤 놀이터가 많은 한국의 놀이터와 오버랩되면서 우리 아이들 놀이터가 놀이터일수 있는 놀이터가 되길 소망했다

VI. 연수 성과

놀이는 아동의 흥미, 자발성, 자유로움을 추구한다. 따라서 놀이밥 60+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은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질문, 경험의 조합이라는 놀이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했을 때 성공적 안착이 가능하다고 본다. 영국의 놀이 정책과 현장 방문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토대로 놀이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로 잡고 아동 권리에 입각해 놀이 문화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아동이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놀이 활성화 방안

가. 놀이의 교육적 가치 검증을 통한 놀이에 대한 가치, 태도, 문화 재정립

아동의 놀이와 여가 문화 조성은 놀이시간과 공간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브룬펜브레너(1979)의 생태체계 모델에 따르면 한사회의 가치, 태도, 문화는 마치 우산처럼 국가, 지역사회, 가족, 그리고 아동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인과 아동 당사자의 태도와 가치, 문화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새로운 놀이 문화 창출이 가능하다. 아동의 놀이 시간과 놀이 공간의 확보, 아동이 주도하는 놀이문화의 확산의 부모, 교사, 정책 입안자 등 성인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권리로서의 놀이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일반인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등도 인

식 변화와 가치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동이 놀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도록 놀이에서 자발적으로 호기심을 발휘하고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대로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놀이 전략 수립

놀이 정책은 놀이를 권리로 인식하면서 놀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2)가 놀이와 여가활동을 증진할 것을 권고한 것과 한국 아동의 여가와 운동 놀이 등의 결핍 지수가 학업과 인터넷 게임 등으로 높다는 보고(보건복지부,2014)는 국가 수준의 놀이 전략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아동 놀이 정책 수립과정과 평가기준은 ‘그것이 과연 아동을 놀게 할 것인가’ 이어야 하며 놀이 공간 확보를 포함한 놀이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배치하여야 한다.

놀이 정책 추진 방향

- (놀이의 가치, 문화) 모든 사람들이 놀이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이해가지고, 놀이를 지속하거나 새로운 형식의 놀이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사회 문화 형성해야 함
- (공평한 놀이 기회)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놀이공간을 지역과 계층, 인종과 상관없이 제공하며, 모든 아이들에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놀이 공간 확보) 학교에서의 놀이가 아동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쉬는 시간 운영, 요일별 활동 배분의 균형과 조화, 방학과 주말동안의 숙제관련 지침 마련
 - * 아동에게 놀이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놀이 기회’보장
- (자유로운 놀이 환경) 이벤트성 놀이를 배제하고 동기부여된 놀이, 재미있는 놀이를 지향
- (안전과 도전이 조화로운 놀이 환경) 놀이는 안전하면서도 도전적이고 탐험적인 일탈적 놀이방식을 아동에게 허용하고 놀이환경의 안전을 위해서 놀이 전문 인력 배치도 중요

다. 놀이 문화 원칙과 기반 조성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모, 놀이 전문가, 관련 제도 정비, 기반 조성 등 서로의 역할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부모) 부모는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육과정에서 놀이를 우선순위로 둬
- (놀이전문가) 아동이 놀이를 증기는 과정에서 외부의 어떠한 압박도 받지 않고 노는 순간 몰입을 경험하는 최선의 놀이가 될 수 있도록 놀이 전문가를 배치
- (관련 제도 정비) 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법과 정책,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기반 조성) 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놀이 지원센터, 인적 자원 확보, 학교에서의 놀이 기회가 확보되어야 함

* 학교에서의 놀이기회 확보를 위해 놀이의 기본설비 및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1일 60분 이상 노는 시간 마련, 아동 스스로 놀이에 대한 자기 평가, 창의적 놀이와 도전이 허용되는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

3. 결론

아동의 놀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지금, 다시 아이들에게 놀이가 밥이 되고 미래가 되는 상상을 한다. 전북교육청에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놀이밥 60+ 프로젝트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놀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작하였다. 이제부터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놀이는 아동의 신체, 정서, 사회, 인지, 언어 등의 발달 영역과 동일한 수준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놀이 공간 부족, 관련 제도 미흡으로 학교 현장에 안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다. 놀이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놀이 정책 및 놀이 문화 확산 움직임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아동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놀 수 있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아동의 복지뿐만 아니라 권리, 안전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영국의 아동위원회와 같은 기구에 대한 필요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부모, 교사,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이 다시 제대로 놀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동이 놀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설립을 통한 놀이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고 가정과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놀 시간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놀이는 놀이 리더와 놀이 전문인력이 있을 때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다. 아동들에게 놀이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으니 이제는 학교와 지자체, 학부모,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아동의 놀이에 대한 존중과 놀이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놀이는 머리 좋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을 미래가 아닌 오늘 당장 만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놀이가 학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는 과정에는 아무리 놀이 전문가를 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관찰하면 될 것이다.

놀이 정책을 수립하고 놀이 공간과 시간을 마련함에 있어 행정이 아닌 아이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면 해답은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원하고 행복해한다면 조금 위험해도 괜찮다. 어른들과 행정이 조력자가 되어주면 될테니까. 놀이에 대한 교육적 가치와 인식으로 시작한 전북교육청 놀이밥 60+ 프로젝트는 머지않아 아이들에게 밥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수 소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곳,... 학교

2016 전북교육청 글로벌 테마연수 준비를 위해 6명이 모였다. 놀이가 공부라 되는 학교, 놀이가 친구가 되는 방법을 찾을까 하는 설레고 벅차는 마음으로 지난 10월 런던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공모의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프로젝트를 마치고 돌아와 짐을 풀 때까지 즐겁고 힘찬 모습이었던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좋은 사람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멋진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으리라는 기쁨 때문이었으리라.

많이 준비한 만큼 중앙정부부처, 일선 학교, 각종 놀이터 등 다양한 잉글랜드의 교육 장면들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무래도 아이들을 직접 지켜볼 수 있었던 놀이터와 초등학교였기에 그 느낌을 공유하고자 한다.

잉글랜드의 동네 놀이터는 멀리서 보았을 때 우리들의 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미끄럼틀이 있었고, 트램펄린과 그네가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놀이터와 매우 흡사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본 놀이기구들은 우리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그 성격과 철학은 매우 달랐다. 그 곳의 놀이기구들은 더 높았고, 더 불편했고, 더 높았다. 발을 내딛자 평균대는 좌우로 흔들리게 설계되어 있었고, 미끄럼틀을 타려면 계단 대신 그물을 잡고 오르거나 수직 사다리를 이용해야 했다. 원하는 놀이기구 까지 달는 것도 당최 쉬운 것이 없었다. 우리나라라면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사실 내 생각에도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설계된 위험. 더 흔들리고, 더 미끄럽고,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 등의 크고 작은 위험을 극복하면서 아이들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가 넓어지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놀이터에서 만난 한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잉글랜드 놀이터의 기본적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 연수를 떠나기 전 분명 이러한 놀이터의 철학에 대한 글을 읽었던 것이 그 때서야 불현 듯 기억을 스쳐갔다. 이렇게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어른인 나도 이러한데, 아이들에게 위험하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글로 가르쳐 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놀이터만큼 큰 울림을 주었던 초등학교에는 ‘너무나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영혼’들이 살고 있었다. 우리 일행이 돌아본 오전 내내 초등학교의 운동장은 쉬는 법이 없었고, 조용한 법이 없었고, 즐겁지 않은 적이 없었다.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과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학교의 주인은 아이들이었고, 주인들을 행복하기 위해 그 곳에 어른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이방인의 가슴에도 전달되었다.

“학교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배우는 곳” 이라고 이야기 했던 교장선생님의 이야기는 그 동안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아끼다 못해 너무나 나약하고, 미성숙한 채로 자라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재능이 있는데 어른들이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고민해 볼 일이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이다. 적어도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 시기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대한민국의 교육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또한 느껴졌다.

더 많이 도전해서 끝내 성공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때까지 기다리며 응원해 주는 것, 넘어졌다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터득할 때까지 기다리며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내가 보고 느낀 잉글랜드의 어른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었다. 당장에 우리의 교육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잉글랜드의 교육이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낫다고 이야기 할 수도 없다. 다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잘 다듬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다.

이제 놀이가 밥이 되고 미래가 되는 세상을 꿈꿔도 될까. 운동장 놀이터가 오늘따라 더 쓸쓸해보인다.

◆ 연수 활동 사진

Chelsea Open Air Nursery School and Children's Center에서의 교육활동

- 건물, 직원과 장비 일체를 왕실과 켄싱턴 자치구인 첼시에서 제공받고 있음
- 생후 아동부터 6세까지의 프로그램운영, 아동의 활동에 부모, 교사가 참여
- 언어(듣기, 말하기, 이해하기), 신체(공간활동), 특수(글배우기), 개별활동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기)



아이의 모든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 다문화, 장애아동의 성장 관찰

시정각 교재의 경우에도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음
어미오리가 새끼오리들과 물놀이를 간 이야기책의 장면을 물과 주변 수풀의 색을 맞추어 실제 장면을 연상하게 하고 있음

◦ 놀이와 야외활동

- 날씨와 관계없이 인근 숲과 공원으로 야외활동을 함



첼시아외보육원의 실외놀이터 전경



자원봉사(부모)자가 아동의 놀이에 참여
사진은 돌아가는 원판에 아이들이 물감을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번지는지 관찰하도록 하는 장면



- 숲은 아이들의 훌륭하고 충분한 놀이공간이다



- 비나 눈이 와도 야외학습을 하는게 원칙
- 비나 눈이 오면 그에 따른 체험이 있기 때문이다.

놀이기구의 특징 : 자연적인 소재(목재 등)를 사용하며 인위적인 부분을 최소화



놀이기구를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하여 아동의 안전에 최우선
교사는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관찰자 역할이며, 놀이와 활동에 형식이나 제한이 없어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가고 즐길수 있는 공간과 환경 배치

Yeading Junior School 에서의 교육활동

◦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 아이들의 자신감 향상과 자발적인 학습에 주력함(다문화 아동들의 학습이행을 위해 영어와 수학을 중점적으로 지도)
- 학교와 가정, 지역기관과 커뮤니티의 연대를 중요하게 여겨 학부모가 아이들의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
- 장애아동 등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함
-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 시설과 프로그램 실시



교장실의 모습
교장선생님은 일정부분 수업과 교육에 참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작품을 교실 전체에 게시하고 있음
각 아이들의 학습 성취도에 따라 다양한 경험



학생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Yeados'
출석률은 영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으며 학교 평가(OFSTED)에서는 아이의 행복의 척도로 이해



복도는 아동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든 다양한 작품과 사진을 전시하는 일종의 전시관 같은 분위기
기임

◦ 놀이와 야외활동

- 실외 놀이는 보조교사 또는 학부모봉사자를 통해 돌보게 함
- 교사는 놀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아동 스스로 창의적 활동을 함 (아이들이 놀이 안전에만 집중함)



아이들이 자유롭게 색칠할 수 있도록 한 설치물



높낮이를 이용해서 물의 흐름을 알게하는 구조물



스스로 작업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조성된 모래놀이터



형식이 없는 목재, 박스를 이용하는 놀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운동장



낙상이 우려되는 놀이시설은 잔디밭에 조성해 놀음



학교내에 조성된 숲, 캠프를 하고 흙으로 제작된 오븐에서 빵과 피자 등을 만들어서 먹기도 함



아이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텃밭

다이애나 기념 놀이터(Diana Memorial Playground)

○ 놀이 시설 현황과 특징

- 놀이터 중앙에 있는 해적선은 피터팬 이야기를 모티브로 함
- 숲이 놀이기구가 어우러지도록 배치하고 다양한 테마로 구성
- 인위적인 소재가 아닌 나무와 돌 등을 이용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조성



피터팬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해적선



바위 동산



동산 아래 작은 터널을 만듦



길게 늘어진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아지트



동네 산책길에서 만난 놀이터

우리 동네 놀이터와는 달랐다. 규격도 없고 형식도 없다. 어떻게 놀아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기구들. 아니 재료들이라고 해야 맞겠다. 탐험이나 모험을 즐기기에는 더할나위없이 행복한 놀이터임에는 틀림없었다. 하도 신기해서 매달려보기도 하고 오르기도 했지만 노는 방법은 각자 달랐다.

